

## 12/8(수) 욥기 묵상 27

욥기 18:1-2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8장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과 나눈 두 번째 변론입니다. 빌닷과 나눈 첫번째 변론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타협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로 죽은 것이고 욥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욥 8:3-7,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지만 빌닷은 두 번째 변론에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의 희망적인 미래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욥에 대한 공격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2-3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은 먼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못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포함한 그의 친구들을 모두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란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욥 16:2-4,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욥 17: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욥 17:10,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빌닷은 욥이 스스로 분노를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것은 욥이 욥 16장에서 언급한 말씀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욥 16:9,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신을 그의 분노로 찢으셨고 친구들은 자신을 모욕하고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라고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 악인의 운명

빌닷은 5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빛은 꺼지게 되는 운명입니다(5-6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기서 ‘빛’은 번영과 생명을 상징하지만 ‘빛이 꺼진다’는 것은 활동이 중단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시 1: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둘째로,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넘어집니다(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와 반대로 의인은 자기의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게 됩니다(시 1:1-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셋째로, 악인은 재앙과 질병 그리고 공포가 따르게 됩니다(11-14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뿔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여기서 빌닷이 표현하고 있는 악인의 재앙과

질병 그리고 공포는 공교롭게도 욥이 당한 고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넷째로, 악인은 그의 삶이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14-21절). 이 구절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의 말씀(“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은 악인의 삶은 후손이 남지 않는 잊혀지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소발은 악인이 얻게 될 궁극적인 결론에 대해 언급합니다(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발이 처음에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그치게 되길 원하는 것 같았지만 소발의 발언은 욥을 더 자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발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악인의 운명과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시편 37편). 하지만 소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무리 옳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발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소발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욥의 자식들은 모두 그들의 지은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고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악인들을 보면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히 살다가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시 73:2-5,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즉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참된 지혜란 교만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할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지혜를 주시도록 또 지혜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북한을 위한 기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약 86 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약 2 개월치 소비량이다.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인구의 약 4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인해 모든 거래가 제한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른 식량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정부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과 협상을 통해 조속히 국경 폐쇄가 풀어지고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있기를 기도하자.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페루 황윤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